

“새병원 건립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취임5개월’ 정신전남대병원장

서남권 중심 의료기관 역할...예타 꼭 통과돼야 1조1천억원대 신축 비용 정부 과감한 지원 기대

“지역 거점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요리를 책임지게 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전남 지역 거점국립대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 신축 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신(사진) 병원장은 지난 1월29일 제34대 전남대병원장으로 취임, 2일 기준 업무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정 원장 취임 후 이를 뒤인 2월1일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공의 이탈, 전임의 계약 포기 등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원을 경영해오고 있다.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들어보고 향후 계획 등을 짚어본다.

▲병원장 취임 직후 의료상황이 악화되는 등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개월을 보낸 소감은?

-먼저 의료현장 차질 장기화에 따라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물론,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취임 이후 이같은 상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

상진료체제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누적손실액이 약 631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반기에는 비상경영을 더욱 고도화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지역거점병원이자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

▲현재 ‘의료상황’의 해결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이번 사태는 정부와 의사 간 신뢰가 깨지면서 발생했다. 정부가 국가 의료 문제에 대한 의사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또 미래의료를 위한 상설 대화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 왜 새병원을 건립해야 하는가?

-전남은 도서지역도 많은 만큼 서울은 물론, 광주까지만 오려고 해도 수 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의료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소아, 중증외상, 응급환자 등 골든타임이 필요한 질환군은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전남대병원이 광주와 전남, 전북 및 도서 벽지까지 아우르는 서남권 중심 의



료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도 우수한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시설만 갖춰진다면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새병원 건립 사업 현황은?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은 지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진행 중이다.

2022년 예타 신청 시 사업비를 1조2천146억원 등으로 계획했지만, 예타 과정에서 1조1천438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한 자체 용역 결과 비율

이 ‘1’을 넘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타를 통과하면 1단계로 동관 건물을 2030년까지, 2단계로 서관 건물을 2034년까지 각각 완공할 계획이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일정을 당겨 조기 완공하고 싶다.

▲병원 신축 비용 1조1천438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현재 기준 국고 지원액이 약 3천억원 정도 된다. 이 금액은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9천억원원은 전남대병원이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이 수익을 내는데 신경 쓰다 보면 의료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미 지역 거점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5일 부산대병원을 찾아 병원 신축 비용 7천억원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전남대병원 신축 비용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한다.

▲3년 후면 정년퇴직이다. 이후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국립대병원 의사로 일하며 36년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고 싶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의료봉사와 의료진 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소도시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지역의 전문 필수의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해외 의료 봉사 활동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수희 기자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독서 릴레이’ 추진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은 2일 “시교육청 역점사업인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의 실천을 위해 월례회에서 ‘추천책 독서 릴레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독서릴레이 첫 번째 책은 정성숙 교육장이 추천한 윤우상 작가의 ‘강강술래학교’다. ‘강강술래학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3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가 심리치료 경험을 토대로 편지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또 윤우상 작가(정신건강의학과 박사·맑음마음병원 원장)를 강사로 초빙, 직장교육도 진행했다. /김다이지



전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전남지방경찰청은 2일 “전남 본청 남도마루에서 22개 경찰서장 등과 함께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가자들은 112 신고 및 5대 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증감률 분석을 바탕으로 범죄취약지역을 발굴했고 기능 및 경찰서별 범죄예방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치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동순찰대 전략적 배치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재영 기자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에 ‘NCT WISH’ 위촉

국제적 위상 이미지 부합 MZ세대에 큰 반향 기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에 K팝 글로벌 아티스트 ‘NCT WISH’(사진)가 선정됐다.

(재)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7일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전 세계로 알릴 홍보대사로 NCT WISH를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198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전시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구축하고 새로운 담론의 실험정신을 보여준 광주비엔날레 이미지와 부합하다는 것이 선정 배



경이다. 지난 2월 데뷔한 NCT WISH는 시온, 리쿠, 우시, 재희, 료, 사쿠야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청량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돋보이는 아이돌

그룹이다. 2024 최고의 신인으로 주목받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멤버들과 팬들의 간절한 소망이 맞아떨어진 팀을 의미하는 팀명 NCT WISH는 ‘WISH for Our WISH’라는 캐피프레이즈 아래 모든 이들의 소원과 꿈을 응원한다.

(재) 광주비엔날레는 홍보대사 NCT WISH가 MZ세대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을 기대하며, 광주비엔날레가 지닌 유행무세의 문화를 향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CT WISH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선정돼 기쁘다. 홍보대사로서 광주비엔날레를 전 세계의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오는 9월7일부터 12월1일까지 86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양림동 일대에서 개최된다. /최정진 기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 후원금 전달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 장애인 체육회 발전위원회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한상득 수석부회장, 김현성 사무처장, 정성고 발전위원회 추진단장과 추진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1억800만원을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광주 장애학생선수 장학금 ▲패럴림픽·아시아게임·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국내외 주요대회 참가 지원 ▲전문체육 선수·지도자 포상금 ▲체육지도자 청년인턴 운영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홍보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은 “많은 이들이 기금을 모으는 것은 더 큰 힘이, 더 큰 정성

이, 더 큰 마음이 모아져야 가능하다. 100인의 발전 위원들이 십시일반 후원 기금 1억여원을 모아 주셨다. 감사하다”며 “이 후원금은 돈을 넘어 마음을 모은 것으로, 광주장애인체육회 발전과 선수 육성에 긴요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는 지역 기업과 후원인 100명이 광주장애인체육회 경쟁력 강화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광주시장에 인재육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결성했다.

발전위원회 추진단장은 정성고 (구대명)의식산업 대표이사, 부단장은 박상규 (㈜경서) 대표이사, 정형열 (㈜이서이엔씨) 대표이사, 추진위원은 윤진영 (㈜류연) 대표, 천병일 (㈜경서이엔지) 대표, 최희미 (㈜하리노유용) 대표이사 등이다. /백선경 기자

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선박 안전진단’ 봉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는 “최근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어민들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진단, 해양 정화 활동, 결핵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지역 자생단체 목포지주강양식어조 조합법인과 신안군 지도읍의 선도어촌계를 대상으로 ▲선박 안전진단 서비스(선외기 어선 28척) ▲소화기·구명조끼 지원 ▲선도항·포구 해양 정화 활동 ▲결핵 검진 서비스(자생단체, 어촌계원, 섬 주민 등 70여명 대상) 등을 제공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관계자는



“항후에도 목포지역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도사회서비스원,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식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일 ‘2024년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의 반부패 의지 및 청렴 실천 계기를 마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반부패 청렴 서약식 낭독과 서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된 서약식에는 강성휘 원장을 비롯해 서비스원 전 직원이 참여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약식을 계기로 더욱 투명한



고 공정한 우리 경영을 실시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서비스원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인사

- 광주시 ◇3급 승진 ▲대학인재정책과 김동현 ▲문화정책관 김성배 ▲대변인 신동하 ▲신활력총괄관 이승규 ▲총무과 이영동 ▲도로과 백남인 ▲주택정책과 정현우
- ◇4급 승진 ▲총무과 고인엽 ▲인사정책관 김상용 ▲청년정책과 김영화 ▲정책기획관 김용진 ▲경제정책과 나병우 ▲대변인 박광석 ▲미래산업총괄관 박형주 ▲문화정책관 양보근 ▲여성가족과 윤미경 ▲안전정책관 정준호 ▲돌봄정책과 형광일 ▲교통운영과 윤동현 ▲건강위생과 배강숙 ▲자원순환과 정미경 ▲건축경관과 박기병 ▲도로과 배두엽 ▲회계과 최길배 ▲보건환경연구원 김연희
- ◇5급 승진 ▲안전정책관 강현애 ▲대변인 김무진 ▲노동일자리정책관 김수미 ▲신활력총괄관 김지은 ▲예산담당관 김형완 ▲청년정책과 박지혜 ▲문화정책관 송운상 ▲대중교통과 심현정 ▲여성가족과 윤미월 ▲시민소통과 이재욱 ▲경제정책과 정경호 ▲자치행정과 최미진 ▲정책기획관 한명진 ▲대변인 신재경 ▲데이터정보담당관 이현경 ▲감사위원회 한광훈 ▲돌봄정책과 정우선 ▲자원순환과 정신근 ▲안전정책관 윤태울 ▲복지정책과 김용일 ▲감사위원회 김민경 ▲문화도시소장과 김석우 ▲광역교통과 이연희 ▲공간혁신과 최영호 ▲공간혁신과 기윤 ▲회계과 김광태 ▲AI반도체와 영경환 ▲보건환경연구원 이윤국 ▲농업기술센터 임형준

- 광주동구 ◇4급 승진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광주시 전출 권운숙
- ◇4급 전보 ▲자치행정국장 김선희
- ◇5급 승진 ▲산수1동장 직무대리 유홍수 ▲지산2동장 직무대리 김화정 ▲지산2동장 직무대리 김윤희
- ◇5급 전보 ▲3대전략추진 단장 이은주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행정지원과 이경석 ▲세무1과장 김석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 부음
- ▲김정목씨 별세, 김현성(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현철씨 부친상=발인 3일(수) 낮 1시30분 만평장례식장 202호실(062-611-0000).